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세계성찬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0. 다 감사 드리세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눈과 귀는 온통 평양에 쏠려 있었습니다. 남북한의 정상들이 만나 평화 통일을 향한 하나의 징검돌을 놓았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 길이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이끌어주십시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자라나게 해주시고, 더 나은 세상을 이루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땀흘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름 받은 우리들이 먼저 따사로운 햇살이 되어서 가슴 시린 이들을 전심으로 품어 안게 해주십시오. 인정과 사랑이 메마른 곳에서는 황량한 광야를 푸른 목초지로 바꾸는 시원한 소나기가 되어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무기력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기다리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고후4:6 인도자

♠ 교 독 문 54. 성례식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II. 한상의 장르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200. 주의 피로 이룬 샘물 다함께

성경봉독 I. 김 극 집사

II. 창26:26-33

찬 양 찬양대

말 씬 I. 김재흥 목사

II. 브엘세바 김기석 목사

성 찬 식 다함께

- 헌신의 찬송 508. 주와 같이 되기를 다함께
- 헌금봉헌 다함께
-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위압적이고 경계심에 가득찬 눈빛을 사랑과 감사의 시선으로 바꾸십시오. 불평의 말을 찬미로 바꾸며 사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다 함 께 : 아멘. 우리의 가난한 생존마저 유린하려는 유형무형의 횡포가 끊임없는 세상이지만,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늘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십시오. 아멘.

-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월례회/회장 및 인도자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찬양 인도 : 장성호	기도 : 정미경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장영숙 전도사	김금순 집사

10월	영접위원	구성실	김중수	박병희	이순정	고숙이	박미영
	헌금위원	한완식	김인걸	김용진	최영혜	장혜숙	박홍재

주님, 가난한 분이 되어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주님, 더 이상 부요한 분이 되십사 청하지 않겠습니다. 가난한 분이 되어주십시오.

주님의 권능을 빌지 않고 주님의 가난을 빕니다. 가난은 주님의 지혜입니다. 가난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가난은 주님이 내게로 오시는 외가닥 길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가까이 하실 엄두가 나셨다면 그것은 주님이 가난한 분이 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이 감히 내 하소연을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주님이 가난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게서 무엇인가 찾으신다면 그것은 주님이 가난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하는 것도 주님의 가난입니다. 주님의 가난으로, ‘지음받지 않으신’ 사랑이 사람이 되었고, 우리 중의 한 사람 곧 가난한 자가 되신 까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난이 그만한 깊이를 갖고 하나님 사랑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께 대한 순종에서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난을 당하여도, 악을 당하여도, 슬픔의 홍수를 당하여도 사세를 바꿔주십사고 아버지께 청하지 않으셨다.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것이려니 하시고 우리 중의 한 사람으로서 앞장서서 걸어나가셨다.

죽음을 이 땅에서 없애주십사 청하실 수 있었으나 하지 않으셨다.

세상을 아무도 굶주리지 않는 에덴 동산으로 바꿔주십사 청하실 수 있었으나 하지 않으셨다.

전능하신 분께서는 당신이 매우 사랑하시는 이가 고통을 겪지 않게 선처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현실,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계의 현실, 인간의 죄와 불복종으로 일그러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다.

그 현실에서 출발하셔야 했다.

그 현실을 구속의 길이려니 하고 받아들이셨다.

갈보리라 여기고 받아들이셨다. 신비라 여기고 받아들이셨다. 가장 위대한 자기 증여로서 받아들이셨다.

예수님은 앞장을 서셨다. 거대한 문어처럼 사방에서 당신을 옥죄는 현실, 가공할 혼돈처럼, 죽음의 올라미처럼 당신을 죄어오는 현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셨다.

그토록 거창한 악의 무계에 짓눌려 그이는 정말 ‘야훼의 가난한 이’가 되셔서 하나님 뜻대로 광대무변하고 신비로운 바다로 거꾸로 떨어지셨다. 요한 예언자가 상징했듯이 애오라지 한 분만 의지하고 바다 속으로 가라앉으셨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풀리지 않는 문제의 해답이시요 모든 상반된 것들의 종합이신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셨다.

그리고 모든 불복종을 변상하고 남는 그 순종, 모든 반역을 일소하고 남는 그 비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마3:15) 그 의로운 행위를 아버지께서는 쾌히 받아들이셨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히5:7).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죽음을 보시고)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빌2:9).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인간의 가난, 예수님이 철두철미하게 받아들이신 가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다.

죽음의 심연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나님 뜻의 가없는 바다 속으로 가라앉던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흔들며 위로위로 솟구쳐 오른다. 아버지의 권능을 입어 부활이 끝없는 광명 속으로 뛰어오르는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는 인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법칙이 되었다.

모든 구원의 비밀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살고 가신 ‘받아들이는 태도’, 물에서 구원받고 죽음의 혼돈에서 구제받은 우리 각자가 살고 가야 하는 ‘받아들이는 태도’에 비밀은 있다.

이것이 세세대대로 감추어져 있다가 마지막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비밀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궁극의 증거요, 그 어른이 사랑에 죽으실 줄 아시는 분이라는 궁극의 증거다.

--C. 카레토, <<아버지 나를 당신께 맡기나이다>> 중에서

나팔꽃

--이윤학

나팔꽃은 시름시름 앓다가도
동이 트면 훌훌 털어버린다.

후회란 원래 그런 줄속이다.

괜히 피었다 싶다가도
피기 전으로 돌아가려 하다가도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 싶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나팔꽃은
뺨 뚫린 목구멍으로
자기 몫인 햇살을 받아 삼킨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세계성찬주일** : 매년 10월 첫째 주일은 세계성찬주일(World Communion Sunday)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2. **선교회 월례회** : 오늘 오후 모임은 선교회별 월례회입니다. 참여가 변화를 만듭니다.
3. **관리부회의** : 오늘 오후 집회 후에 관리부 회의가 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사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관리부원들은 꼭 참석해주시시오.
4. **동호회** : 교회 일정상 한 주 앞당겨 14일에 모입니다.
5. **여선교회 예술제** :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가을 모임 및 예술제가 10월 9일(화) 오전 10시에 상동교회에서 열립니다.

* 식당 봉사 : 다메섹 속

* 토요 봉사(13일): 박효선, 허정운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홍순구, 안홍숙(결혼기념일) 이한림, 김명희(결혼기념일) 박석희, 조항미(결혼기념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